

1주차

# 개요 -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김 지 민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자생활과 감정표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 5차시

#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감정 표현

# 조선시대 여성 교육

- 유교사상 안에서 규정된 여성의 역할
- 여성들에게 유교적 가치(충, 효, 열)를 가르침



삼강행실도

# 조선시대 여성 교육

---

- 국가가 주도한 유교 윤리에 맞는 여성의 ‘교화’,  
성리학적 도덕성 강조
- 양반층의 사교육
  - <사기>, <논어> 등 유학의 기본 소양을 함양
  - 여성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

- 지적 호기심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글을 쓴 여성들
- 실용적 내용을 책으로 펴낸 여성들



정부인 안동 장씨, 음식디미방 (1670)  
한글로 쓴 최초의 여성 집필 조리서



# 한글의 도입

---

- 여성들에게 배움의 문턱을 낮춤
-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 국가에서 여성수신서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
-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은 여성들 자신

# 조선 여성과 한글

- 한글을 적극 수용, 확산한 양반 여성들
-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비주류 문자 한글의 만남
- 한글을 깨우친 여성들의 독서 열풍
- 문학 창작, 편지 교류, 실용서 쓰기 등을 통해 한글 문화 형성



■ 윤덕희, 독서하는 여인 (18세기)

# 조선여성과 한글

---

- 한글을 이용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여성들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16세기 조선 여인이 죽은 남편에게 쓴 한글 편지
- 1998년 경북 안동 이응태 묘에서 출토



이응태 묘에서 출토된  
'원이 엄마의 편지' (16세기)

원이 아버지께.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임세권,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 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 올림



# 원이 어머니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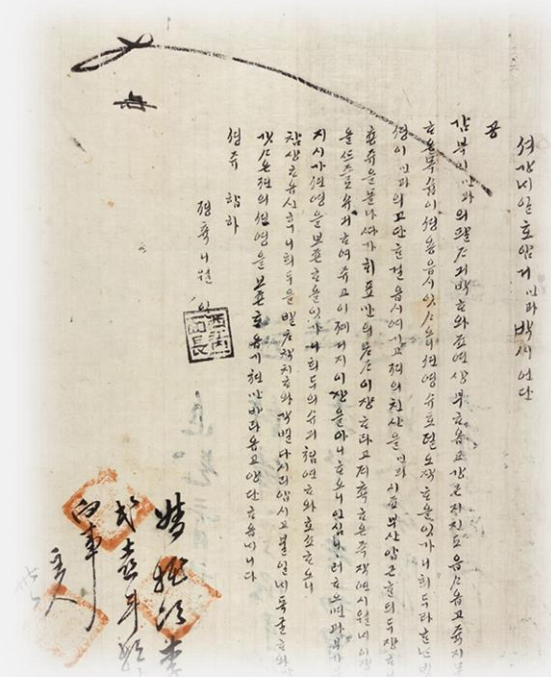
---

-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당시 평범한 여성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담은 글
- 16세기 경상도 방언과 한글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 소지(所志) : 조선시대 개인 간의 분쟁에서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
- 여성이 제출한 소지에는 특정한 호칭이 붙어있음
- 조선에서 여성은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



■ 박씨 부인이 선산 수호를 위해 올린 한글 소지 (1877)

# 조선시대 소송 과정

---

- 문서로만 진행 : 논리적인 글쓰기와 법률적 지식 필요
- 남녀노소,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평민 여성의 경우 법적 지식, 논리적 글쓰기의 문턱이 높았음

# 여성들의 소 제기

---

- 소송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지 작성을 부탁
- 소지는 보통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여성의 소지 중 20%는 한글로 작성**
- 한 가정의 소송에서 남성만 소장 올린 것은 아님

# 장씨 부인의 소지 (18세기 말~19세기 초)

---

- 출가한 딸이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전답 소유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
- 같은 마을 고침지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소 제기
- 장씨의 남편이 올린 한문 소지에 이어 장씨가 올린 소지

# 장씨 여인의 소지

---

- 경우에 따라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를 올림
-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의 글쓰기 방식이 다름

「한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녀의 진외육촌 오라버니 고희득이 올 봄부터 그의 증조부 전답이라 하고 빼앗으려 하기로, 하늘에 사무치는 큰 원통함으로 원정을 삼공원께 올렸습니다. 삼공원께서는 ‘문서 지니고 대령하라’ 하시기로 진외육촌 오라버니를 만났는데, 오라버니 말이, ‘문서를 태울지라도 마을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하니 본래 완악한 사람인 줄 알고 ‘상계택에 고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문」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진외육촌 고희돌이라는 놈은 본래 완고하고 패악한 놈으로 여인을 멸시하고 억지로 떼를 써서 전답을 빼앗으려 사단을 일으키니 세상에 어찌 이처럼 근거없는 습속을 허락하겠습니까



「한글2」 전후 동중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소장을 올리오니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신 후 세상에 남의 문서를 도적하여 전답을 빼앗으려는 죄를 다스려 다른 백성을 징계하시고, 장가가 수 삼대 동안 갈아먹던 밭을 장가 소생에게 전하여 외손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천만번 바라고 바랍니다.

「한문」 이에 감히 소장을 올리오니 살피신 후 특별히 엄금하시고 흠쳐간 논문서를 즉시 찾아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 장씨의 소지

---

- **한문 소지**: 장씨가 읽을 수 없었기에 간단히 작성, 피고 이름이 잘못 기재
- **한글 소지**: 장씨가 읽을 수 있었기에 억울한 심정에 대해 감정적인 호소
  - “팔자기구 [八字崎嶇]”, “각골지은 [刻骨至恩]”

# 여성들의 소지에서 한글 사용

---

-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 재판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의도

# 여성들의 소지에서 한글 사용

---

- 정확한 의사 전달에 한글이 효과적
- 의도한 생각, 말과 글의 일치
- 한글은 여성이 생각과 감정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됨

# 마무리

---

-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쉬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 봄
- 차별과 억압의 틀로만 보기 힘든 다양한 모습
- 다음 수업 : 근대 이후 역사적 변화,  
여성들의 삶의 조건 변화와 반응

[출처01]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신윤복 “장옷입은 여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6653&menuNo=200018>

[출처02]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민속 39649)

[출처03]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본관 6504-19)

[출처04]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족보 200)

[출처05]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신수 3550)

[출처06] 강원도청 (향토유적이위열녀목비각)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atcUrl=keyword&recommendIdx=8545>

[출처07]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한구 6112)

- 강명관, “조선 전기 부처제(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 《여성과 역사》 25, 2016.
- 김정인,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32(2), 2016.
- 김지수, 김대홍 옮김, 《정의의 감정들》 (너머북스, 2020).
- 박종덕, “이응태묘 출토 한글 편지의 음운론적 연구 – 원이 엄마가 사용한 16세기 방언의 실체,” 《동아시아고대학회》 38, 2015.
- 박준호, “조선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 글쓰기,” 《국학연구》 36, 2018.
- 이성숙, “여성사강의와 페미니스트 교수법,” 《여성과 역사》 8, 2008.
- 이성숙, “오늘날, 여성사란 무엇인가,” 《여성과 역사》 6, 2007.
- 임세권,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 안동》 (민속원, 2017).
- 정현백 외, 《글로벌 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 정현백,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17, 2012.
- 주진오 외, 《한국 여성사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 홍양희,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7-2013,” 《여성과 역사》 19, 2013.
- JoanW. Scott,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 1986.
- Lee, E. et al., “EungTae's Tomb: A Joseon Ancestor and the Letters of Those That Loved Him,” *Antiquity* 83, 2009.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